

17:00  
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 
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 <b>건설교통부</b><br><br>MINISTRY OF<br>CONSTRUCTION<br>& TRANSPORTATION | <b>보 도 자 료</b><br><br>MOCT News Release            | 부 서  | 기획관리실<br>기획담당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://www.moct.go.kr">www.moct.go.kr</a> | 과 장  | 정 병 윤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기관  | 하 동 수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담당) | 윤 준 상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14 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☎    | 504-9011/2     |

## 국토균형발전 3대 시책 본격화

- 행정중심복합도시, 공공기관 지방이전, 기업도시  
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, 수도권발전방안을 연계 추진 -

□ 건설교통부는 금년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보상에 착수  
 하고,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며, 기업도시 시범  
 사업을 선정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3대시책을 본격 추진한다.

○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 
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 
 육성해 나간다.

□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업무  
 계획을 3.7일 오후 대통령께 보고했다.

□ 금년에 추진할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

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 
 건설하기 위하여, 금년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,  
 토지보상과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한다.

- 행정중심복합도시를 “살기 좋고 경쟁력있는 21세기 첨단 도시”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 설계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수립하며,
  -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은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전에 엄격하게 차단기로 하였다.
-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월에 이전대상 기관과 시·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한다.
- 약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·도로 이전하며,
  -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·학·연·관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,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·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.
- 이를 위해 8월까지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, 하반기중 구체적인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다.
  -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, 토지보상 및 건설공사를 거쳐 '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.

○ 특히, 주택공사, 토지공사, 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타 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

- 내년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'10년까지 조기 이전기로 하였다.

□ 또한, 기업도시 시범사업에도 본격 착수한다.

○ 4.15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5월중 시범도시 2~4개를 선정한다.

- 시범사업은 낙후지역과 산업집적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며, 하반기에 기업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, 내년말에 착공한다.

□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'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'으로 본격 육성한다.

○ 수도권을 1중심(서울), 2거점(인천·수원)과 '4대 특성화 벨트'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, 서울은 금융·국제 비즈니스 허브, 인천은 물류 중심,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특성있게 발전시킨다.

○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,

- 획일적인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과밀 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'정비발전지구'를 도입하기로 하였다.
  - 또한,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광역도로망·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, 장기적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및 철도 복선전철화(경의·경원·경인·경춘·중앙선)사업을 추진한다.
  - 이러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.
-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임대주택정책의 재검토 방향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운용 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.
- 임대주택의 건설·공급·관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, 필요한 계층에게, 필요한 곳에,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.
- 택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, 기존의 택지확보방안을 보완하고, 도심의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.

○ 또한 계층별,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위주로 임대주택 입지를 선정하고,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.

○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 실적이 부진하고, 부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,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하고, 민간임대주택 보완대책도 마련한다.

○ 아울러, 공공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, 주택공사의 중장기 수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, 지자체·지방공사 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○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임대주택 종합대책」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중 확정·발표한다.

□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, 주택 등 시가공시, 재건축 개발이익환수,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,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개혁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.

○ 우선, 부동산 거래가 100%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망을 구축한다.

- 656만호에 이르는 주택 등의 시가를 4.30일 공시하고, 이와 연계하여 주택가격전산망과 토지종합정보망을 금년중 구축 완료하며,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다.

- 이렇게 되면, 개인별로 주택과 토지의 소유 및 거래 현황을 100% 파악하게 되고, 부동산 거래 차익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.

- 또한 재건축 아파트, 판교, 기업도시 등 일시적·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우려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사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분양관련 투기는 지난 2.17일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

-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는 토지거래허가제,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투기억제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고, 추가적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제 시행, 국세청·검경 등 합동 상시 단속반 투입과 함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대상 지역 선정시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□ 건설교통부는 우리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, 국토 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대폭 강화한다.

- 국토종합계획, 댐건설장기계획 등 건교부 소관 24개 장기계획은 수립시부터 계획 자체의 환경성에 대해 환경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고,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금년부터 실시한다.
-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획이 확정된 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되어,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폭 증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앞으로 도로·하천·신도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「친환경지침」에 따라 개발과 관리를 하게 된다.
- 개발사업의 입지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선정하고, 시공과정에서도 친환경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.
- 또한,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 공원·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, 태양열, 풍력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며, 보행자 도로, 자전거 도로를 녹지와 연계하여 설치토록 한다.
-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,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(가칭)경관법을 제정한다.

-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, 토지 소유자와 주민간에 자발적인 지역경관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, 정부는 재정, 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, 지역의 경관조성 사업이 보다 체계화,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달성한다.

- 현재 교통카드가 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교통수단별로, 지역별로 달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.
- 금년에는 부산권과 김해시간, 경인버스와 수도권 전철간, 서울 교통카드와 고속도로·철도 카드간 교통카드 호환을 달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호환성을 제고하여, 2007년에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호환을 완료할 계획이다.
- 또한, 교통카드의 사용범위도 고속도로, 철도, 공원, 주차장 등으로 확대하여 교통카드의 이용률을 제고한다.

□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9개노선(147km)과 광역전철 9개구간(260km)을 차질없이 건설한다.



○ 금년에는 부산 3호선 1단계, 대구 2호선 등 지하철 2개 노선을 개통하고, 청량리~덕소간 복선전철화를 완료한다.

○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‘땅위의 지하철’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(BRT)와 버스 準공영제를 확대하고 운송업체의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고, ‘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계단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완전 해소한다.

□ 안전한 국민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를 ‘08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 167km에 歩道を 설치하고(‘05년, 40km), 인명피해가 많은 철도 건널목 661개소는 ‘12년까지 완전 입체화하기 위해 금년중 31개소를 완료하고, 61개소를 착수한다.

○ 또한, 지하철 내장재를 내년 6월까지 전부 교체하고, 지하철 승강장에 ‘07년까지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승강장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키로 하였다.

- 건설교통부는 선진한국, 선진경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물류산업과 건설산업을 선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우선 지입제 등 낙후된 물류 산업구조를 선진국과 같이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해 운송·포장·보관 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한다. 금년에는 정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,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또한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공항, 항만, 세관 등을 연결하는 수출입 통합정보망과 화물 전자태그(RFID)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물류정보화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.
-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제2연육교를 착공하며, 경부고속철도는 환경영향공동조사 등 환경대책을 강화하면서, 공정만회에 주력하는 등 국가 물류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호남고속철도는 상반기중 분기역을 선정하고, 현재 진행 중인 보완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
-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건설기술력을 제고해 나간다.

○ 일반·전문 건설 업종간 통합을 추진하여 그동안 업역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, 지난해 구축한 건설 산업 중앙 DB를 활용하여 시공실적, 기술능력 등을 상시 점검하여 기준 미달업체는 퇴출을 유도한다.

○ 또한, 건설기술 R&D 예산을 '07년까지 매년 100%씩 증가하고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, 현재 선진국의 60~70% 수준인 우리의 건설기술력을 2015년까지 선진국의 90% 이상으로 높히기로 하였다.

○ 이와 아울러, 정부의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해외건설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, 해외건설수주를 지난해보다 10억불이 증가한 85억불을 달성하고, '15년까지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7위를 달성하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, 그동안 대표적인 비리 유발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설계감리, 설계 변경, 턴키공사선정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, 비리 관련업체는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.

□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빠른 시일내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재정과 종합투자계획을 조기 집행한다.

- 상반기중 건설교통예산의 62%를 집행하고, 서수원~평택, 영덕~양재 고속도로와 판교·아산·파주 신도시 등 신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  - 또한, 부산~울산, 무안~광주, 여주~양평 등 3개 고속도로사업에 연기금을 유치하고, 6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추가 추진하며, ABS 발행으로 1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금년에 총 2조원의 건설투자를 확대하여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였다.
- 건설교통부는 '일 잘하고 깨끗한 부처'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동안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.
- 과학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직무성과계약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일 중심,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,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.
  - 또한,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e-감사 시스템, 건축허가 인터넷 처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.

## 2005년도 업무계획 주요내용

| 5대 핵심과제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균형있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지정 및 용지 보상 착수</li> <li>○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</li> <li>○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및 지구지정</li> <li>○ 수도권 정비·발전방안 확정</li> <li>○ 전략환경평가제 시행 및 경관법 제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철 내장재 조기 교체('06.6)</li> <li>○ 국도에 보도 설치('05. 40km)</li> <li>○ 교통카드 전국 호환('07)</li> <li>○ 지하철 2개, 광역전철 1개 구간 개통</li> <li>○ 하천개수율 100% 달성('11)</li> <li>○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</li> </ul>            |
| ③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천국제공항 : 2단계, 제2연육교 착공</li> <li>○ 경부고속철도 : 환경대책, 공정만회 주력</li> <li>○ 호남고속철도 : 상반기 분기역 선정, 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</li> <li>○ 종합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 효율성 제고</li> <li>○ 물류전문대학원 설립, 수출입 통합정보망 구축 등 물류기반 확충</li> </ul> |

| 5대 핵심과제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④ 부동산시장 안정<br>및 주거복지 향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, 주택시가공시</li><li>○ 공시지가 현실화, 토지 정보망 완료</li><li>○ 보상제도 개선</li><li>○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</li><li>○ 임대주택공급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</li></ul>               |
| ⑤ 건설경기 진흥과<br>건설산업 선진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상반기중 예산의 62% 조기 집행</li><li>○ 종합투자계획 조기 이행</li><li>○ 해외건설수주 85억불 달성</li><li>○ 일반·전문 건설업종 통합 등 건설<br/>산업 구조개선</li><li>○ 건설기술 R&amp;D 확대</li></ul> |